

조선대 캠퍼스에 교육·의료 시스템 갖춘 은퇴자 마을 조성

대륙아주·부산 동명대와 업무협약 신개념 시니어 복합 케어 시스템

조선대학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캠퍼스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

조선대는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 추진을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부산 동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UBRC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등 100여 대학 캠퍼스에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은퇴자 주거 및 교육시설이다. 전통적인 시니어 주거 단지 기능과 함께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접목한 신개념 시니어 복합 케어 시스템이다.

조선대가 캠퍼스에 추진하는 UBRC는 은퇴자와 대학생 간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 행복한 은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조선대는 이를 위해 교육, 건강, 의료 등 기반시설을 갖춘 기반을 캠퍼스에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대와 동명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의 성공을 돕고 은퇴자들의 인생 3막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국내 UBRC의 플랫폼 기능을 갖추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시니어타운 지원팀을 만들어 한국 UBRC위원회와 조선대의 UBRC 구축에 따른 종합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제공 하는 한편, 대륙아주 등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맨 오른쪽)이 지난 7일 대학기반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 추진을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조선대학교 병원 인근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이 시니어라는 점을 감안, 병원 접근성이 높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UBRC는 김춘성 조선대 총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2025년부터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한국 현실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시니어 지원 관련 시설 문제에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UBRC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광산지역 특성 반영 교육 지원

내년 상반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가칭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구축, 광산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 지원에 나선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기본계획은 ▲광산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설립을 위한 TF 구축과 역할 ▲예산 확보와 자치법구 개성 계획 등 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될 때 서부교육지원청이 광산교육청을 흡수·통합하면서 지금까지 광산교육청을

말고 있다. 이후 택지개발 등에 따라 광산구 지역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 학생도 증가, 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있다.

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로 광산구에 있는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이 가진 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산구 지역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6일 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국제직업고 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 및 준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동강대 국제교류원,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본격화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

㈜우원 SSA 서울세종인재개발원과 협약...유학생 맞춤 서비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유학 전문 기관과 손을 잡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본격 나선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교내 본관 1층 총장실에서 ㈜우원 SSA 서울세종인재개발원(대표 이기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원 SSA 서울세종인재개발원은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유학 국가 및 학교, 어학수업, 출입국, 입학 및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학습기관으로 유학생들의 논문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동강대는 ㈜우원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 광주 전문대학 독점으로 모집 홍보, 면접 지원, 서류 준비, 중도탈락 방지대책 등에 대해 힘을 쏟게 된다.

이에 동강대는 지난해 한국어학당을 신설하고 24학년도부터 외국인 학생을 선발해 한국어를 지도한다.

동강대는 외국인 학생 유치 및 해외 대학과 협약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속 대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응에안 성에 위치한 한베산업기술

대학교(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College) 25주년 개교기념식에 참석했다.

한베산업기술대학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베트남에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1998년에 설립한 기술 교육기관으로 재학생은 3천 여명이다.

한베산업기술대학교는 지난해 10월 호남담담 총장을 비롯한 5명이 동강대를 직접 찾아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 오는 19일 베트남 응에안 무역관대학교(Nghe An Trading and Tourism College) 관계자와 교내에서 만남을 갖는다.

동강대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현지에서 응에안 무역관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응에안 무역관대는 1996년 개교해 응에안 성의 관광, 호텔 경영, 상업 경제학, 서비스 비즈니스 분야의 인재를 양성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소상공인협동조합(KFSB)과 함께 사회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외국인 학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40억 들여 교육환경 개선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학년도에, 40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강의실 등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1차 개선 공사를 마쳤다.

호남대학교는 2024년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1호관(학문관)과 2호관(건학관)의 에너지 절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창호공사와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휴미락 비즈니스 분야 강의실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했다.

또 교수학습개발원의 시설 개선과 건축학과 스튜디오 구축, 4호관 4-6층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한 융합전공 교육환경 개선 작업도 벌였다. 이와함께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 가로등과 횡단보도 등의 개보수 공사로 마쳤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는 4호관(상하관)과 5호관(현명관)의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으며, 7호관(성인관) 국제회의실 리모델링공사 등 학습시설 공사를 마쳤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교육청, 국제직업고 개발연구용역 착수

착수보고회 갖고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준비 사항 공유

전남교육청이 이주 배경 학생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글로벌 교육의 초석이 될 전남국제 직업고등학교(가칭·이하 전남국제직업고) 운영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국제직업고 운영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 유학생 유치 계획 및 준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직업고 운영을 위한 전남형 모델 로드맵 제시 ▲전남 미래 산업 특징 및 수요 분석 ▲법령 및 규제 개정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의 주안점은 전남국제직업

고의 설립 비전과 해외유학생 유치, 산·학 연계 운영, 교육과정개발, 졸업 후 진로 취업 연계 등 특화된 운영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남국제직업고는 ▲기존 직업고교에 해외 유학생 유치(2025년 3월) ▲기존 학교를 전남국제 직업고로 전환(2026년 3월) ▲전남국제직업고 신설(2028년 3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병국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전남국제직업고 운영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